

길즈미기 도현님

졸업작품창작
최순식 교수님
영상문학 20110859 유승민

<도련님 길들이기>

1) 주제

불 타는 사랑보다 미운 정이 더 무섭다

2) 기획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사랑의 세레나데는 남의 이야기이다. 살아가며 마주치는 악연에서 발전해가는 인연. 투닥거리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정이 들어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옛 말에도 있지 않은가.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법!

3) 장르

로맨틱 코메디 TV 드라마

4) 등장인물

a. 박강일 (29)

DS 그룹 막내 아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 한 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실패한 적은 한 손에 꼽는다. 생후 11개월의 칠전팔기 걸음마 시절, 그리고 생후 19년 대학 입시 시절 정도? 하지만 그의 인생 굴곡은 쌓여있는 돈들이 말끔히 밀어준다! 부족해? 공 하나 더 붙이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하나 더 추가! 돈으로 안 되는게 어딴어.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돈의 후광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흥청망청하게 빛날 본인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강일. 여태껏 누군가를 위해서 사근사근하게 말해본 적도, 배려하는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큰 시련이다. 그것도 첫 시련부터 이렇게 어려운 법이 어딴어?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한 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겠다. 사실 박강일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포기 따위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매달려 본다. 박강일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딴어?
부족해? 공 하나 더 붙여.
그래도 안 되면?
공 하나 더 추가! ”

#경호의 박강일 관찰일지

박강일이 미쳤다.
아침엔 깨워도 깨워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놈이
요샌 마을 아저씨들과
새벽 야구를 한단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b. 최진경 (26)

착하고 순박한 시골처녀. 얼음골 사과 아가씨 후보로 애지중지 길렀건만 19세 겨울 대학 원서를 내민다. 내 서울로 갑니다. 예, 세프! 하면서 후라이팬에 자갈 넣고 손목 스냅을 연습하던 진경은 평생 참아왔던 똥고집을 발휘해서 서울로 상경한다. 최씨 가문 똥고집이라던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더라. 힘든 타지 생활은 그녀의 순박한 마음 속에 악바리 근성의 씨앗을 심어 놨다. 그래,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명언 중의 명언이다. 세상만사 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노력하면 될 지어다! 일 년이 넘도록 후라이팬 한번 못 잡아봤지만 항상 방실방실, 방긋방긋 웃으며 지냈다. 언젠간 나 최진경이 주방을 제패하는 날이 오기를! R=VD를 마음 속에 새기며 열심히 설거지 실력만 키워가는 도중, 인정머리 없는 손님 하나 때문에 여태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인어공주는 물거품 때문에 갈 곳 잃고 사라졌다는데 진경은 물거품 때문에 갈 곳 잃고 다시 돌아가게 생겼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밀양으로.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과아가씨 후보 1번으로 돌아온 진경의 조용한 삶에 불청객이 찾아온다. 오호라. 인정머리 없던 그 녀석?



"반갑습니다~!
사과아가씨 후보 1번
최진경입니다~~
저는..
아, 아버지. 나 못하겠어(ㅠㅠ)"

"아이고, 진경아~~"

"뭐야. 여긴 왜 왔어요?
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
자~알 지내 봐요, 우리(^.^)!"



c. 최진태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동명마을 이장 최진태. 마을 사람들 일이라면 어디든지 팔부터 걷고 달려가는 마을의 슈퍼맨이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부탁이든 사과든 뭐든지 Yes! 하지만 단 하나, 불가침 영역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진경이다. 평소에는 경운기로 이곳 저곳 태워다주는 다정한 아저씨지만 진경과 단 둘이 있는 사내놈들에겐 사리 빗자루부터 들고 보는 박력남이다.

d. 임경호

DS 그룹 막내 왕자님 모시느라 힘들었다. 벌써 강산이 두 번 변해간다. 못난 건 아니다. 나 또한 어디 가서 명함은 내밀만 하다. 근데 이 유아독존 싸가지랑 놀다보니까 맞춰주는 게 버릇이 됐다. 아, 나 진짜 하인 타입 아니라고~ 피 보다 더 끈끈하게 붙어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정하고 꼼꼼한 남자가 됐다. 나야 이제 살길 찾아 가는데, 지 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절친인 이 철부지를 어쩌면 좋을까.

5) 줄거리

드라마 <파스타>를 보며 현욱(이선균) 같은 셰프를 만나 주방에서 함께하는 꿈을 꾸던 진경(26)은 아버지 진태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 되지만 진경이 꿈꾸던 현욱 같은 셰프는 없고 만사에 투덜거리며 남 탓하기 바쁜 지훈이 그녀의 담당 셰프가 된다. 요리에는 손도 못 대고 자잘한 잡일만 하던 진경이 드디어 일년여만에 데코레이션에 손을 댈 수 있게 되지만 완성한 첫 접시가 나가자마자 컴플레인이 걸려온다. 파스타에 머리 카락이 들어있었던 것. 담당 셰프인 지훈과 보조를 맡은 진경이 나가 사태를 수습하려 해보지만 손님 의견은 굳건했다. 바로 해당 셰프를 해고하라는 것. 보통 손님이 아닌 VVIP 손님이라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었고 지훈은 진경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진경이 간곡하게 선처를 구하지만 그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고 진경은 이 일로 해고를 당한다. 쫓겨난 진경은 생활비와 월세 낼 돈이 떨어져 꿈을 접고 결국 다시 고향인 경남 밀양으로 돌아간다.

진경은 서울로 떠나기 전처럼 다시 마을 공동 농사인 과수원에서 일하며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무료한 동명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검정색 외제차가 나타난다. 그 차를 타고 온 남자인 강일(29)은 이장인 진태를 찾아온 것이라는데. 강일은 진태의 집의 뒷 산 땅을 자신에게 팔라는 제안을 하고 진태는 단칼에 거절한다. 다시 설득하려는 찰라 사과밭으로 진경이 새참을 들고 오다가 강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자신의 간곡한 부탁에도 뜻을 굽히지 않아 자신을 레스토랑에서 해고까지 가게 한 그 똥고집 손님이 바로 강일이었기 때문이다. 진경은 바로 진태 옆에

앉아 간죽거리며 강일의 말끝마다 말꼬리를 잡아 늘어진다.

돈으로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강일은 서울로 돌아가 절친 경호에게 하소연을 늘어 놓는다. 그 땅으로 묘자리를 해야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으니 그 땅을 얻지 못하면 유산은 꿈도 꾸지 말라던 할머니의 으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호가 건넨 조언은 시골 사람들은 인심과 정에 약하니 우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럴싸한 조언에 강일은 다음 날이 되자마자 마을로 돌아가 싹싹한 청년인 척 마을 일을 돕지만 진경이 그를 따라다니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탄지를 건다.

결국 강일은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에는 성공하지만 땅은 줄 수 없다는 진태의 단호한 말에 절망한다. 그 땅은 지난 날 진경의 할아버지가 첫사랑에게 같이 살자 약조했던 땅이라는 것. 아버지는 첫사랑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며 여태껏 혼자 기다리셨으며, 고아가 된 자신을 거둬주신 분이기에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일은 또 다시 경호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이번엔 여자를 공략해 보라고 한다.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간도 쓸개도 빼주니 그 여자(진경)를 꼬셔보라는 것. 마침 이장네의 둘도 없는 외동딸이니 한번 넘어오면 이장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니 편으로 사로잡고, 땅도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 경호의 의견이었다. 또 그럴싸하게 넘어간 강일은 진경을 꼬시려 갖은 방법을 써보지만 진경은 요리조리 피하며 분위기를 깨기 일쑤다. 그러던 와중에 알게 모르게 두 사람 사이에 미운 정이라는 것이 쌓여가지만 두 사람은 애써 부정한다.

이도저도 되는 일이 없는 강일은 자포자기 상태가 된다. 소득 없이 이제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하던 순간, 강일은 진경의 할아버지 방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그 사진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한 소녀의 사진이었는데 강일은 그 소녀가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자 자신의 할머니인 순이임을 알게 된다. 사실 강일의 할머니도 첫사랑인 최씨 할아버지를 잊지 못했으나 첫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 창피해 묘자리를 핑계로 대충 둘러댔던 것.

최씨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가 상봉하고 덕분에 땅을 얻는 것은 실패하였으나 강일은 유산을 전부 약속 받는다. 분명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서울 집 자신의 침대에 누웠지만 자꾸 가슴 한편이 짹짹하다. 밤새 뒤척이던 강일은 해가 뜨자마자 차를 몰고 밀양으로 향하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에 앉아있는 진경을 발견한다. 그제야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강일은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 갑자기 나타난 강일을 발견한 진경 또한 자신의 허했던 마음의 원인을 깨닫는다.

6) 시나리오

S#1. 엘레나 가든(레스토랑) 홀

우아한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중세 궁전 풍의 엘레나 가든.
사람들이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거나 파스타를 먹고 있다.
까만 정장 바지와 흰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종업원을 따라가면
분주하고 열기가 엄청난 주방.

종업원 알리오 올리오 하나요.

S#2. 주방

두 뺨은 죽히 넘어 보이는 요리사 모자를 쓴 여자의 뒷모습.
돌아보면, 진경이다.

진경 (재료를 준비하며) 알리오 올리오의 생명은
 좋은 올리브유와 신선한 마늘!
 바로 갈릭 오일의 간을 환상적으로 맞추는 거지~

마치 비룡처럼 재료를 던지고 허공에 칼질을 하면
재료가 손질되어 도마 위로 떨어진다.
주방 식구들, 일동 환호와 박수.

진경 자, 이렇게 완성된 음식을 접시에 붓.. 어? 접시 상태 왜 이래.
 오늘 설거지 담당 누구야!

지훈 (사람들 사이에서 달려나오며) 접니다!! 죄송합니다, 주방장님!

진경 왜 이래? 설거지 한 두 번 해봐?
 (직접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며) 이렇게 수세미로 뽀뽀! 어? 뽀뽀!!

S#3. (진짜) 주방

진경이 정신 차리면 부담스러운 크기의 모자는 사라져있고
가슴팍에 노란 병아리 뱃지가 빛난다. 삐약(효과음).
퐁퐁 거품이 묻어있는 접시와 수세미는 그대로 진경의 손에 있다.

지훈 야! 최진경!

어깨에 닿을 정도의 장발을 끈 하나로 질끈 묶은 지훈이 크게 소리친다.

지훈 접시 미리미리 안 씻어 두냐? 아, 빨리 갖고 와!!

진경 (급하게 접시를 물로 헹구며) 죄송합니다!!

진경이 접시 내려놓자, 팬 위에 요리된 알리오 올리오를 쏟아붓는 지훈.

지훈 야, 바쁘니까 데코는 네가 해라.

팬을 설거지 통에 던지다 싶이 넣고 가는 지훈.

진경이 놀란 듯 멍하니 서있는다.

지나가던 동료 형기가 진경을 툭 친다.

형기 뭐해! 네 첫 파스타 다 불어터지겠다.

진경 ..으응. (활짝 웃으며) 해요, 해!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것저것 정성들여 데코레이션을 하는 진경.

진경 최진경표 1호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완성했습니다!! 아자!

영현 최진경표 첫 데코 아니구?

진경 아, 언니~~

영현이 웃으며 진경이 건넨 알리오 올리오가 담긴 접시를 받아간다.

S#4. 훔

까만 바지에 흰 블라우스 차림의 영현이 접시를 들고 온다.

영현 실례합니다, 손님. 주문하신 알리오 올리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테이블에 놓여진 진경의 알리오 올리오.

데코에 집중.

손님이 포크를 들어 맛본다. 놀라는 표정.

손을 까딱까딱하자, 가까운 곳에 서있던 영현이 다가온다.

손님 담당 셰프 좀 볼 수 있을까요.

S#5. 주방

진경이 감자 한 박스를 킁킁 거리며 들고 주방에 들어온다.
웅성거리는 주방 사람들.

진경 (바닥에 내려놓으며) 웃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뭔데~ 뭔데~
형기 진경아, 대박. 지훈이 형 호출됐어.
진경 앵? 그게 이렇게 큰일이에요?
형기 DS그룹 막내 아들 있잖아. 개한테!
진경 헐~ 사장님까지 오셔서 서비스 철저하게 하라던 그 손님이요?
형기 어어. 그 사람 첫 호출이라고
 지훈이 형 어깨에 힘 싹 들어간 채로 갔어, 지금!
주현 온다! 형 온다!

더욱 더 웅성거리는 주방.

홀이 보이는 작은 창으로 보면,
주방 쪽으로 걸어오는 지훈 뒤로 테이블 위에 파스타 접시가 보인다.
진경은 괜히 자기가 뿌듯한 표정이다.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오자, 사람들 환호.
근데 지훈의 표정이 밝지 않다.

형기 형, 왜 그래?
지훈 ...

어리둥절한 사람들.

지훈 다음으로 들어온 영현이 주현의 귀에 속닥거린다.

주현 지훈이 형 자르라고 했다고?
형기 헐, 왜??
영현 (주현에게 눈치 주며 옆구리를 쿡 찌른다)
주현 아, 왜!! 머리카락 들어갔다고 자르라는 게 어딤어!
 지가 후계자면 다야?

형기 형 진짜야? 와, 대박이다. 진짜.

주방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때, 단숨에 조용시키는 한 마디.

지훈 나 아냐. 재야.

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 끝엔 감자 깎던 진경.
진경, 어버버한 표정이다.

진경 저..요?

지훈 (인상 팍 쓰며) 그럼 나겠냐? 내가 머리 똑바로 묶으랬지.

진경의 옆머리 몇 가닥이 빠져나와있다.
창고에서 감자 박스 꺼내다가,
머리에 감자 한 알이 떨어져 옆머리 살짝 빠져나오는 회상 짧게 오버랩.

진경 어, 이거 아까.. 아까 감자 꺼내다가..

지훈 (무심하게) 지배인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다.

진경 어.. 나 진짜 아닌데.. 저 진짜 아니에요!!

진경이 억울한 듯 두 눈이 글썽거린다.
사람들은 당황한 듯 진경과 지훈을 번갈아가며 본다.

지훈 뭐야, 다 구경났어?! 다들 하던 거 마저 해!

지훈의 고함소리에 다들 눈치 보며 자기 자리로 간다.
지훈이 진경을 보며 소리 없는 비웃음을 날리자,
진경은 꼭지가 돈 듯 감자 칼을 내던지고 홀로 향하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간다.

S#6. 흘.

와인을 마시고 있는 손님.

주방에서부터 화난 진경이 성큼성큼 걸어온다.

진경 손님. 요리에 문제가 있으시다구요?

손님 (쳐다보지도 않으며) 이야기는 끝난 거로 압니다.
진경 저희 주방에는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는데요.
손님 그럼 제 머리카락이겠습니까?

진경이 손님을 보면 짧은 머리다.

진경 저.. 진짜.. 아닌..
손님 (말 끊으며) 제 요리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게 불쾌하고
더군다나 믿고 다녔던 엘레나 가든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만.
정 그러면 사장 불러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원 서비스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켰냐고.
특히 최.진.경.씨.

손님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경을 올려다 보면,
진경 이름표 클로즈업.

진경 아, 저.. (울먹이며 불쌍한 척) 저 진짜 아니에요. 손님..

진경이 손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징징거린다.

손님 그쪽이든 아까 그 남자든 제가 알 바는 아니구요.
어쨌든 머리카락이 나온 건 변함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진경 (비굴) 아, 한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한번만..

진경이 징징거리자

손님이 짜증나는 듯 인상을 팍 쓴다.

미간을 찌푸리며 올려다보는데, 이름표 옆에 노란 병아리 모양 뱃지 발견.

손님 (살짝 짜증나는) 보아하니 견습생 같은데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난동 부려도 됩니까?
여기 모토가 손님은 왕이라던데 그 쪽은 무수리 정도 아닌가?

진경 뭐, 뭐라구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손님이 손을 살짝 들며 영현과 종업원들을 본다.

진경 허, 참. 살다 살다 이런 놈도 다 보네.
 야!! 너 돈 많으면 단 줄 알아?!?!

이것(진경) 좀 치우라는 듯 손으로 까딱까딱.
서로 눈치 보는 종업원들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영현.

S#7. 주방

작은 창에 옹기종기 모여 홀을 구경하는 사람들.
창으로 보면, 영현이 진경을 일으켜 세우자, 진경이 울고불고 난리치기 시작한다.
다른 종업원들이 여럿 몰려와서 진경을 끌고 데려간다.
손님은 신경 안 쓰는 듯 와인 음미.

주현 진경이 진짜 찢리는 거야?
형기 모르지..
주현 진짜 개새끼네..
지훈 (버럭) 뭐?!
주현 (소심하게 창 밖 가리키며) 아니, 점마..

어색하게 웃는 주현과 형기.

S#8. 마감 후, 탈의실.

작은 탈의실. 양 옆으로 캐비닛들이 길게 붙어 있다.
캐비닛에 기대어 앉아 있는 진경.
무릎을 끌어당겨 얼굴을 파묻는다.
영현이 진경의 앞에 쪼그려 앉아 진경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영현 너무 걱정 마, 진경아. 지가 사장도 아닌데 진짜 자를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

그때 총지배인 철영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철영의 트레이드 마크인 항상 웃는 표정과 함께.

영현 아, 오셨어요?

진경 (고개를 들어 확인하곤 후다닥 일어나 꾸벅 인사)
철영 영현씨도 같이 있었네? 영현씨, 자리 좀 비켜줘요.
영현 네? 아, 네..

영현이 나가자 철영의 미소가 사라진다.

철영 진경씨. 나도 어쩔 수 없다, 정말.
진경 ...
철영 그냥 손님도 아니고 VVIP인데 어떡해.
그것도 분명 와서 다시 확인해 볼 사람이야.
사장님 친구 분이래 자주 봐서 내가 잘 알아.
진경 지배인님. 제 머리카락 진짜 아니에요..
철영 미안해, 진경씨. 오늘 안으로 캐비닛 비워줘.
진경 아..

붙잡으려는 진경을 무시하고 철영이 문 닫고 나간다.
허공에 떠있는 손을 천천히 내리는 진경.
진경의 눈물이 흐른다.

S#9. 길거리, 늦은 밤.

어두운 길거리. 진경이 큰 상자를 들고 걸어간다.
상자에는 이것저것 담겨 있는데 국자가 빠져나와있다.
축 쳐진 진경의 뒷모습.

S#10. 진경의 옥탑방 현관문 앞, 늦은 밤.

깡깡거리며 작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오는 진경.
현관문에 쪽지가 붙어져있다.
한쪽 무릎을 들어 상자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쪽지를 떼어 읽어본다.
인상 팍 쓴 주인집 아주머니 오버랩.
팔짱 끼고 한 손으로 샷대질하는 모습.

(E) (짜증내며) 진경씨. 이런 식으로 자꾸 월세 밀리면 나도 곤란해.

매번 피해서 될 일이야? 그럼 우리 집은 뭐 먹고 살아.
그게 어려우면 방을 빼야지. 여기 오겠다는 사람 많아.
이번 주 일요일 안으로 월세던 방이던 하나는 정리해줘.
진경 나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고요.. 이씨..

진경이 쪽지 구겨서 상자에 던지듯 넣는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여는 진경.
열쇠가 들어가지 않는다.

진경 (어리둥절) ..?? 뭐야??

열쇠를 보면 엘레나 가든 마크가 붙어 있다.
당황하던 진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진경 설..마..

S#11. 엘레나 가든. (회상)

영영 울면서 캐비닛을 잠구고 그 열쇠를 챙겨서 나가는 진경.
카운터에 열쇠 두 개를 올려놓는다.
상자를 다시 정리하여 끄~차 들고,
더듬거리며 열쇠 하나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는다. (상자에 가려 안 보임)
진경 훌쩍이면서 걸어나가면 카운터 위의 열쇠 클로즈업.
사과 모양의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 하나.

S#12. 진경의 옥탑방 문 앞.

다시, 경악에 찬 진경의 표정

진경 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

상자를 내던지듯 옥상 위의 평상에 내려놓고는,
진경이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웃는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리는 웃음.
점점 멀어지며 깜깜한 달동네로 축소.

개 짖는 소리 멍멍.

달동네보다 더욱 캄캄한 밤하늘엔 별 하나가 빛난다.

S#13. 부엌.

도마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잘려가는 재료들.
냄비는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는 등,
손질되는 재료나 요리 중인 요리 기구 중심으로.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이 중요. 브런치 느낌.
진경, 웃으며 냄비 속 국의 간을 본다.

영희 최진경!

발랄한 노래, 테이프 씹히는 소리 나며 정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몸빼 바지 차림의 영희.

영희 아, 빨리빨리 안 해?
 (버럭) 아저씨들이 오늘은 한 시 안으로 준비하랬단 말이야!!

영희가 뿅 소리를 지르자 허둥지둥 서두르는 진경.
진경도 아래를 보면 몸빼 바지 차림이다.

진경 아, 이거만 하면 돼~
영희 이게 아직도 레스토랑인 줄 아나.
 새참은 생명이 스피드! 몰라?!

잠깐의 정적.

진경,영희 (영희가 조금 늦게) ...스피드가 생명!!
영희 (괜히 버럭하며) ..나도 안다.
진경 예예~ 선생님이 펍도 잘 아시는갑네요~
영희 아, 선생님 얘기 하지 말랬지.
 오랜만에 한번 해볼래??
진경 허~ 나는 시방 위험한 요리사여. 보여?

들고 있던 국자를 오버하며 휘둘러 보이는 진경.

영희가 식탁 주위를 둘러보면 새참 바구니 뿐.
영희가 바구니와 국자를 번갈아 보는데,
영희의 엄마인 경희가 들어온다.

경희 느그들 빨리 준비 안 허냐!
영희 (이르는 투로) 아, 엄마! 진경이가~~
경희 무신 진경이가여, 진경이가.
 니가 또 시비걸었겠제. 안 그냐, 진경아~
진경 오늘 이모가 좋아하는 잔치 국수 했어요~
경희 하이고~ 우리 딸은 애미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열 아들 안 부러운 게 아니고 진경이 아버지가 부럽네~
진경 에이~ 나도 이모 딸이지, 뭐!
영희 야, 웃기지 말고 빨랑 담아!

영희가 툄툄 거리며 소면과 그릇, 수저를 챙긴다.
진경이 웃으며 가스렌지 불 끄면,
영희가 냄비를 들려고 하는데
경희가 먼저 든다.

경희 하이고. 됐다. 아가씨는 그릇이나 챙기시지~?
 웃차. (머리 위에 얹으며) 가자! 느그 아버지들 기다리시겠다.

경희와 영희가 투닥거리며 나간다.
웃던 진경의 표정에 살짝 씁쓸함이 맴돈다.
얼린 물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따라나가는 진경.

S#14. 사과 밭, 낮.

넓은 사과 밭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멀리서 검은색 반짝이는 물체가 다가온다.
빠까 번쩍한 검정색 외제차다.
다가오던 외제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과밭 앞에 멈춘다.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쳐다본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수트에 검정색 선그라스를 낀 모습이다.
도로변에 제일 가깝게 있던 마을 이장, 진태가 도로로 올라온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진태.

진태 누구..
강일 마을 이장님이 누구십니까.
진태 접니다만. 와예?
강일 (명함을 내밀며 씨익 웃는다)
진태 뭐고, 이게.. 이거 왜 나한테 주는교?
강일 (살짝 당황) 아니, 제가 이런 사람인데 땅을 파셨으면..
진태 (말 끊으며) 아~ 뭐, 재개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으니까 후딱 물러가쇼.
 도장 안 찍습니데이.

밭으로 돌아가려는 진태를 강일이 붙잡는다.

강일 재개발 아닙니다. 제 이름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 DS 그룹 박강일인..
진태 (말 또 끊으며) 아, 도장 안 찍는다카이.
강일 후.. (살짝 화남) 이장님, 진짜 조그마한 땅 하나만 주시면
 제가 섭섭지 않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진태 아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만 가쇼.
 박강일이든 강일이든 낯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땅 안 팔아.

밭으로 돌아가려는 진태와
이를 말리는 강일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멀리서 진경의 목소리가 들린다.

진경 새참 왔어요~!

진경을 발견한 진태의 표정이 급격하게 밝아지며
강일을 뿌리치고 진경에게 뛰어간다.
강일, 잡으려다가 한숨 쉬고 손을 거둔다.
골치 아픈 듯 미간에 손 짚는 강일.

진태 하이고! 우리 딸, 수고 많았데이~
 옥수로 무겁제? 이리 도. 아버지가 들어주꾸마.
진경 아냐. 그냥 물이야, 아버지. 안 무거워!
 (강일을 턱으로 가리키며) 누구야?
 마을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

진태 뭐, 땅 팔라카든데. 재개발업잔가..
 그 쪼가리 보니까 DS 그룹 뭐 어찌고 하더만.
진경 (살짝 짜증) DS 그룹..?

진경이 자기도 모르게 뱀새눈으로 강일을 쳐다본다.
머리 위부터 발 끝까지 쭈욱 훑어보고 다시 올라가서 얼굴.
고개를 가웃 거리는 진경.
강일이 더운 듯, 위쪽 셔츠 단추 하나를 푼다.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살짝 훔치고,
까만 선그라스를 벗는데
진경이 경악한다.

진경 뭐야.. 대박.
진태 왜? 아는 머스마가?

어이 없어하는 표정의 진경.
강일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진경 저기요?

강일이 뒤돌면 그때 그 손님이다.
짧게 오버랩 되는 그때 상황.
그쪽은 무수리정도 아닌가?
숨김 없이 진경을 무시하는 강일의 표정 강조.

강일 (기억 못하는) ..?
진경 얼씨고~ 나 몰라요?
강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헛웃음) 제가 몸빼바지 입는 여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경 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속 뒤집는 건 똑같네.
 기억 안 나요? 엘레나 가든!!

진경이 뻑하고 소리지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진다.
강일의 몸에 맞고 떨어지는 반짝이는 무언가.
보면 병아리 모양 뱃지다.
그때, 강일의 머리 속에 진경의 이름표와 함께 달려있던 뱃지가 스친다.
울고불고 난리치며 종업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까지

짧게 오버랩.

강일 아~ (피식) 그 진상녀~?
진경 진상남이 할 소린 아닌 거 같은데요?
강일 어울리네요, 옷차림.
 저번보다 훨씬 본인 옷 같은데?
진경 ..(살짝 화났지만 꼭 참으며) 아까 보니까 뭐 부탁하는 거 같던데.
 이런 식으로 굴어도 되나 몰라~
 저~어기 이장님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강일 !!

강일의 표정이 살짝 굳는다.
진경, 이거다! 싫은 표정.

진경 이야~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 그쵸?

진경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강일을 본다.
팔짱도 척하니 끼고.
강일, 표정을 숨겨보지만 절망적인 표정이 티가 난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립하는 모습에서 하늘로 길게 화면 빠진다.
(E)로 진경의 호탕한 웃음소리. (ex. 음하하하하!)

S#15. 진경의 집, 저녁.
마당이 딸린 2층의 단독 주택.
부엉이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 들린다.
환하게 불 켜진 창문 아래, 진경이 벽에 딱 붙어 있다.
빼꼼 고개 들어 창문 안을 보면,
진태와 강일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진태와 강일을 번갈아 보는 진경.
멀리서 영희가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진경을 발견한다.
살금살금 다가와서 진경의 어깨에 손을 툅하고 올리는 영희.

영희 최진경 뭐해!
진경 (소리 없는 외침) ..!!!!

깜짝 놀란 진경이 온 몸을 바르르 떨고, 영희는 웃겨죽겠다는 표정이다.

진경과 같이 창문 밑의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는 영희.

영희 싫다면서 뒤통이라고 훑쳐보고 있냐.
진경 뭐하긴 뭐해! 나도 똑같이 휘방 놓을라고...!! (약간 머쓱) 그러지..
영희 야, 근데 진~짜 잘생겼다. 그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다가 돈까지 많네~
 어떻게 삼박자 다 가지고 태어났지?
진경 뭐가 잘생겼어! 완전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저거 트럭 째 퍼다 줘도 안 가지네요.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인성인 거 몰라?
 저거 완전 싹통바가지야!! 말 하는 거 봤잖아!
강일 뒤에서 욕하는 그 쪽도 딱히 예의 바른 거 같진 않은데.

갑자기 들려온 강일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올려다보면,
어느새 창문이 열려있고 강일이 창문에 기대고 서있다.
또 팽팽한 눈 싸움.

영희 저..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이예요~

뜬금없는 영희의 인사에 황당해하는 진경.
강일도 조금 당황해한다.

강일 아, 네.. 박강일입니다.
영희 반가워요~ 진경이가 좀 성격이 그렇죠? 호호.
진경 야, 윤영희! 느그 집에 가!
영희 그렇게 세게 발음하지 마!
 (진경 쪽으로 속닥속닥) 죽을래?
진경 윤영이은 무슨. 윤영희를 영희라고 하지, 그럼 영이라고 하나요~~
강일 영희?
영희 ... (망했다)
진경 네~ 재 이름이 윤.영.희인데
 자꾸 윤영이라고 살살 발음해서 속이고 그러네요~
영희 이 기집애가 진짜.. 됐어! 나 집에 갈 거야!!!
진경 왜요~ 영이씨~ 왜 가요, 영희씨~~

진경이 간죽거리며 영희를 영희와 영이로 번갈아가며 부르고
영희는 싹싹거리며 나간다.

있는 힘껏 대문 콧!! 닫고.

진경 크크. 재밌죠? 영희 놀릴 때가 제일 재밌..

웃으며 강일을 보던 진경은
그제야 정신 차리고 웃음을 멈춘다.

진경 흠.. (새초롬하게)모기 들어가니까 창문 빨리 닫으세요.

진경이 획하고 가버리고
강일은 뭐 이렇게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피식 웃는다.
코너 돌면 조용히 벽에 꾸그러 앉아서 스스로 머리 푹푹 때리는 진경.

진경 (입모양으로) 미쳤어, 미쳤어.

S#16. 마을 어귀, 밤.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서있는 진태와 진경.
강일이 타고 왔던 외제차에 시동이 걸리고
눈 깜짝할 새에 멀리까지 간다.

진태 뭐, 후계자라 카더라 차도 욱수로 빠르네..

진경 저 사람이 뭐래? 뭐 달래?

진태 우리 집 뒷산 땅 좀 달라카는데 안 된다고 콧 못 박아뿌따.

진경 영? 뒷 산? 그걸 왜..? 할부지한테나 소중하지, 뭐 맹지 아냐?

진태 그래서 말인데 흑시.. (진경에게 가까이가며 손으로 까딱까딱)

진경 (긴장하며) 흑시? 왜? 왜?

진태 (과장된 진지한 표정으로 침을 크게 꿀떡 삼키고)

황금이 숨어있는 거 아닐까..!

진경 (허탈한 표정) 하.. 아버지, 집에나 가자..

진태 아, 금마가 돈을 욱수로 많이 준다켰다니까?

이기 뭐 있다. 그냥 땅이 아인 거 같다.

내일 헝구 데리고 땅 좀 뒤집으러 가야겠네. 우리 부자 되게!!!

진경 .. (못말린다는 표정)

진경과 진태가 투닥거리며 걸어간다.

멀어져가는 두사람의 뒷모습.

S#17. 경호의 집.

화이트톤의 고급스러운 오피스텔.

띠띠띠띠.

조용한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울리고
집 안으로 강일이 들어온다.

강일 임경호!! 임경호 어딴어!

강일은 경호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집 안 이곳저곳을 뒤진다.
침실에서 부스스한 경호가 나온다.

경호 야, 나 좀 전에 마감 끝났어..

강일 지금 잘 때냐? 나 그 여자 봤어.

경호 그 여자..?

강일 왜, 니 가게에서 찢린 견습생.

경호 아.. 니가 심술부려서 찢린 여자?

강일 뭐라냐. 나니까 조용히 넘어갔지.

다른 손님이었으면 손님 뚝 끊겼을 거다.

고맙지? 어? 절을 해도 못할 망정, 뭐 심술?

경호 (어이없는 웃음) 그래, 그래. 대~단히 감사하다.

그래서 칼 들고 쫓아왔디?

강일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겠냐.

그 시골에서 봤어. 아, 진짜.

경호 그게 왜? 땅 못 샀어?

강일 어! 얼마를 줘도 소용 없대.

돈 더 받아내려고 수 쓰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여자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말라고 했나..

경호 오~ 박강일 처음으로 실패했네?

강일 실패?? 뭐래, 아직 안 끝났어.

경호 그래? 그건 니가 볼 때고. 남이 볼 땐 실패지. 실패.

강일 ...(빠직) 당장 간다.

경호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며) 뭐?

강일 그래, 까짓거 즐만큼 주면 지들이 별 수 있겠어?!

야, 나 간다!

강일이 쿵광거리며 경호의 집을 나선다.
현관문이 쿵 소리내며 닫히자마자 경호가 큰 소리로 웃는다.

경호 대~박. ㅋㅋㅋㅋ. 재밌게 돌아가겠는데?

S#18. 진경의 집. (소리X)

지난번처럼 진태와 강일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강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가져온 007 가방을 열어보인다.
진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S#19. 다시 진경의 집. (소리X)

또 같은 상황.
강일, 이걸 어떡냐 싶은 표정.
자신만만하긴 한데 지난번 보다 조금 꺾였다.
살짝 진태의 눈치를 보며 사과 박스를 진태 쪽으로 민다.
진태, 고개를 또 젓고는 방을 나가버린다.

S#20. 경호의 집.

쇼파에 길게 누워있는 강일.
부엌에서 경호가 와인과 와인잔을 들고 온다.

경호 또 실패?
강일 ..아오. 왜 안 되지? 왜지? 시세에서 몇 배를 쳐줬는데? 아.
경호 (웃음 참으며) 머리를 써라, 머리를.
강일 뭘 머리.
경호 우리나라 정서가 뭐야. 정이잖아. 정.
강일 그게 왜?
경호 진짜 답답하다.
 아는 사이에 돈 빌려주거나 보증 서줬다가 망했다는 뉴스 못 봤냐?
 거긴 그렇게 산다고.

근데 넌 뭐야. 모르는 놈이 덩씩 달라고 하면 주겠냐?
강일 그런가..?
경호 생각을 해봐라. 아끼는 동생이 달라는데 안 주겠어?
강일 (충격받은 표정으로) ..!! 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하기엔 좀 아저씨네.
경호 더 잘 됐네. 가서 농사일 돕거나 그래봐.
 땅이 뭐야, 딸도 넘어오겠다.
강일 그 딸은 됐어.. 완전 왈가닥이야.
 근데 갑자기 가서 일 돕겠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까?
경호 수확철이라 한 명도 아쉬운데 짹짹해도 어쩔 수 없을걸?
 시기도 딱 좋네. 어쩔 수 없는 그 틈을 노려서 들어가란 말이야. 어?
강일 나 농사 안 해봤어.
경호 누군 해봤냐? 너 유산 못 받으면 진짜 농사 지어야 돼.

강일의 머리 속으로 농부가 된 자신 상상. (짧게)
광활한 황금빛 논에서 수확한 벼 들고 호탕하게 웃는 모습.
의상은 몸빼바지에 약간 촌스러운 셔츠, 밀짚모자 쓰고 목에는 수건 걸려있다.
상상 끝나면 아찔한 표정으로 고개 빠르게 젓는 강일.

강일 아, 진짜.. 할머니..

S#21. 강일의 할머니 댁(본가). (회상)

고풍스러운 집.

강일의 할머니, 순이가 고급 쇼파에 앉아 있다.

그 옆 쇼파에 앉아 있는 강일.

순이 아가, 그 땅을 꼭 가져와야 한다. 할미 부탁이야.
강일 무당이 한 말인데 너무 맹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이 (진지해지며) ..안돼. 그 땅이여야 해.
 강일이 너, 싫으면 너한테 줄 유산은 없던 거로 하겠다.
강일 아, 누가 안 간대요.. 그거 뭐가 어렵다고..
순이 (표정 풀린다) 그래, 그래. 그래야 우리 예쁜 아가지.

S#22. 밀양 고속버스터미널, 낮

고속버스 하나가 터미널에 들어온다.

멈추고 문이 열리면, 급하게 남자 하나가 뛰어나온다.

강일이다.

줄줄이 다른 사람들이 내리고, 유난스럽다는 눈빛으로 강일을 보며 지나친다.

(E) 그거 타고 가려고?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외제차 몇 대나 갖고 있을 거 같은데?

 고속버스 타고 가. 마을까지도 버스 타고. 어?

 옷도 다 갈아입고 그 선그라스도 좀 빼.

 목표는 건실한 청년이다. 알겠지?

강일이 버스 밑에서 짐을 꺼내다가,

짜증이 솟구치는 듯 발로 가방을 뺑하고 찬다.

S#23. 진경의 집 앞, 낮.

가방을 둘러매고 양 손에 짐을 잔뜩 든 강일이 진경의 집 대문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대문을 지나쳐 옆집 앞으로 가는 강일.

벨을 누른다.

강일 저.. (머뭇) 그.. 하숙하러 왔는데요...

 삐익. 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강일이 한숨 한번 크게 쉬고는 안으로 들어간다.

S#24. 사과 밭, 낮.

밭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사과나무 잎따기를 하는 마을 사람들.

바닥에는 잘려나간 잎사귀들이 널려있다.

영희 아, 엄마 언제 와.. 이제 쉬고 싶은데.

진경 아까 이모가 가자고 할 땐 싫대놓고?

영희 오늘 잎따기 마무리 할 줄 몰랐지.. 통탄스럽도다..

경희 새참 왔어요~!

영희 엄마다!!
진경 새참이다! 가 아니라?

영희가 머쓱하게 웃으면서, 진경을 장난스럽게 밀친다.
커다란 냄비를 머리에 이고 오는 경희.
옆에 바구니를 든 남자가 있다.

영희 어?
진경 싹툭 바가지!!

새참 바구니를 든 강일이다.
강일이 못본 척 진경을 지나쳐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한다.

강일 (어색한 웃음) ..새.. 새참 왔습니다~

S#25. 사과 밭, 낮.
아직 잎따기 하기 전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참인 수제비를 먹고 있는 진경과 영희.

진경 저거 저거 왜 또 왔지?
영희 왜, 난 좋은데~
진경 분명 공공이가 있어. 뭘까..
영희 야, 이제 신경 꺼. 니 형부 될 사람이니까!
진경 형부..? ..뭐? 너?!
영희 같은 집에서 살다보면 분명 눈 맞게 되어있어.
 울 엄마도 밭일 하기 싫어서
 아빠랑 같이 꿈수 피우다가 눈 맞았잖아~
진경 (어이없다는 웃음) 그래, 자~알 맞춰봐라. 눈.
 저거 말 하는 거 보면 주먹이랑 맞추게 될 걸!
영희 (진경 말 안 들리는듯) 근데 진짜 잘생겼다.
 봐봐, 다리도 엄청 길어!
 아빠 바진 거 같은데 발목까지도 안 가잖아~
진경 ..내가 까먹고 있었네, 강타 빠순이 윤영희를..
영희 야, 여기서 왜 칠현이 오빠를 꺼내!!
진경 그냥 뭐.. 얼굴 보고 그러는 거 비슷한 거..

영희 칠현이 오빠 잘생기기만 한 거 아니거든?
 내가 매번 얘기했지!! 오빠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종알종알 대는 영희. (소리 묵음)
진경이 어른들 있는 곳 보면 강일이 보인다.
누가 봐도 어색해 보이는데 활짝 웃으면서
아저씨들한테 막걸리 따라드리는 강일.
같이 건배도 한다.

S#26. 진경의 방, 새벽.
아기자기한 진경이 방의 풍경 잠깐.
진경이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다.

(E) 스트~~~라이크!!!!

밖에서 들리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간다.
인상을 찌푸린 진경이 눈을 뜬다.
벽에 달린 시계를 보면 시침이 6에 가있다.

진경 ..이 시간에 뭐야..

한 쪽 눈만 겨우 떠서 커튼 젖히고 창문 밖을 보는 진경.
동네 공터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야구를 하고 있다.
아저씨들 사이에 혼자 우뚝 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강일이다.
강일의 바로 옆엔 진태도 있다.

진경 옹? 아빠가 저긴 왜..

강일이 진태와 공터 한편으로 잠깐 빠져 야구 배트 휘두르는 연습을 한다.
그때 달려와서 강일한테 물을 주는 영희.

진경 ...세상에.

S#27. 영희의 집, 거실.

거실에 벌러덩 널부러져있는 진경과 영희.

옆에는 수박 화채가 있다.

매미 소리 찌르르르.

진경 진짜 덥다..

영희 말하지 마. 온도 올라간다..

조용한 가운데 선풍기가 탈탈 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린다.

혁구 다녀왔습니다!!

영희 동생인 혁구가 방실방실 웃으면서 들어온다.

혁구의 품 안에는 과자 종합 상자가 들려있다.

영희 야, 윤혁구. 과자 뭐야!

혁구 (등 뒤로 숨기며) 건들기만 해봐! 강일이 형이 사준거거든?

영희 강일씨가?

진경 (입모양으로) 강일씨? 우웻.

혁구 내가 야구공 열 개 다 쳐내서 받은 거야! 먹지 마!!

혁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영희가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진경에게 귓속말을 한다.

영희 (작게)저거 침대 밑에 숨긴다? 재 나가면 꺼내 먹자. ㅋㅋ.

그때 혁구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방에서 나온다.

혁구 먹지 말라구 했다!! 누나, 먹으면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나 야구하러 갔다 올게~

(나가려다가 멈칫) 진짜 먹지마!! 진경이 누나도~!

혁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서로 마주보고 실실 웃는 진경과 영희.

S#28. 진경의 집, 거실.

거실 쇼파에 앉아있는 진태가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진경 다녀왔습니다~

진경이 들어오는 소리에 후다닥 등 뒤로 숨기는 진태.
진경이 눈치 챘지만, 모른 척 들어와서 진태 옆에 앉는다.
그리고 갑자기 달려들어 뺏으려 한다.

진태 왜, 왜, 왜 이카노!
진경 뭔데! 뭔데! 뭔데 이렇게 숨겨!
진태 암 것도 아이다!! 아이다!!
진경 뭐가 아냐, 이리 줘봐!

진경이 결국 뺏는데 성공한다.
보면 작은 액자다.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다정하게 서있는 흑백 사진.

진경 어? 누구야? 할아버지?
진태 아이다. 아버지 아이고 내 진짜 아버지랑 어무이시다.
진경 아~ 매번 헛갈리네.
 근데 아버지, 이게 뭐라고 숨겼어? 그냥 보여주면 되지!
진태 니가 소떼마냥 달려드니까 그렇지..
진경 (머쓱) 내가 언제 소떼처럼 달려들었어.. 그냥 조금 그랬지!
 근데 옛날 사진치고는 선명하네?
진태 강일 총각이 그.. 그 뭐카더라? 복원? 복원해준 기다.
진경 그래?
진태 원래 욕수로 흐릿했는데 실력이 좋은갑드라.
 고놈 처음엔 빠리하디만 보면 볼 수록 좀 괜찮은 아갈네.
진경 야구 배트 사줘서 그런 거 아니고?

진경이 턱으로 가리키면 TV 옆에 고이 모셔져있는 새 야구 배트.
진태, 당황한다.

진태 뭐, 뭐, 뭐라캐삐노. 아빠는 말이다, 딱 마음의 눈으로. 엉?

사람을 마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다.
 니도 금마 그만 미워하고 좀 잘 지내봐라. 좋은 청년같디만.
 진경 하이고, 저는 일 없네요.
 진태 니 짤리게 된 것도 아빠가 볼 땐 잘한 짓 같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진경이가 아빠 옆에서 지내게 됐다이가~?
 진경 아버지~!!!

진경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진태가 웃으면서, 도망가듯 안방으로 들어간다.

진태 (얼굴만 빼꼼 내밀고) 강일이 말 들어보니까 오해라 카드만.
 좋은 청년 같으니까 얘기해보고 잘 풀어라~ 싸우면 못 써.
 잘 자라, 우리 딸~
 진경 생각해 볼게. 잘 자, 아버지~

S#29. 사과 밭, 낮.

오늘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일을 한다.
 사과 한 알, 한 알 돌려가며 햇빛이 드는 쪽으로 사과를 돌려준다.
 그때 은박지 뭉치를 어깨에 메고 오는 강일.

진태 강일아, 수고했데이.
 경희 강일이 이제 가서 좀 쉬라.
 자꾸 일만 시켜서 미안하구만~
 강일 에이, 이모 제가 남인가요. 도와드릴게요.
 경희 하이고. 와이래 착하노.
 우리 혁구 이 놈은 어디로 도망갔는가 보이지도 않네.
 강일 빨리 끝내고 삼촌이 좋아하는 막걸리~ (술잔 들이키는 모션)
 제가 쓸게요. 어떠세요?
 경희 이모는 오케바리~
 진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S#30. 영희네 집, 오후.

평상 위에 작은 술상이 차려져 있다.

몇병 먹은 듯 얼굴이 발그레해진 진태, 경희, 강일.
옆에는 빈 막걸리 통이 줄서있다.
형빈(영희 父)이 갓 구운 파전을 접시에 내어온다.

형빈 이럴려고 일찍 퇴근했나? 작작 무그라!
경희 하이고야~ 니 파전을 이렇게 다 태워묵나. 이기 머꼬.
 내 없으면 진짜 안 되겠네. 따라온나. 내, 파전의 진수를 보여줄게.

경희가 형빈을 데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고,
평상에는 진태와 강일만 남는다.
강일이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낸다.

강일 저.. 삼촌.
진태 와?
강일 그.. 뒷산 말인데요. 삼촌한테 중요한 땅이세요?
진태 아~ 내한테 중요한 건 아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중요하다.
 아, 니는 한번도 못 봤제?
 지금 요양병원에 요양차 쉬러 가셨다.
 왜, 그거 안 팔아가 서운했나?
강일 제가 못자리 정도만 작게 필요하거든요.
 할머님이 그 땅에 쉬고 싶다고 그러셔서..
진태 아, 그래서 그때 그런 기가. 근데 어찌노..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고 싶은데
 그거 팔면 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죽어.
 그기 우리 아버지 첫사랑이랑 약속한 땅이거든.
 그래서 그분 기다리신다고 결혼도 안 하시고 여태 혼자다이가.
 아버지가 나를 거둬주셨으면 그럼 그분이 내 어무이지, 뭐.
강일 아..
진태 하이고야, 내가 별 애길 다 한다.
 자, 묵자.

진태가 잔을 들고, 강일이 잔을 맞춘다.

S#31. 강일의 방, 밤.
바르게 펴진 이부자리.

그 위에 강일이 누워있다.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강일.

(E)경호 여보세요.

전화를 거는 강일과 전화를 받은 경호로 화면이 갈라진다.

강일 야, 나 안될 거 같아.

(E)경호 왜?

강일 그게 뭐 삼촌네 아버지한테 사정이 있는 땅인가봐.
나 어찌냐..

(E)경호 음..

강일 빨리 생각해, 새끼야!
니 말만 믿고 와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 야구 연습 가야 되서 일찍 자야 돼.

(E)경호 야구 연습? 계속 하고 있었어?

강일 (당황) ..뭐, 뭐. 그냥 새벽에 좀 심심해서 가끔 한 거야.

(E)경호 대단하다, 진짜.

네가 제 시간에 일어난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강일 따, 탄소리 말고 빨리 생각이나 해.

(E)경호 음.. 그럼 이건 어때?

강일 뭔데?

강일 혼자 화면으로 바뀌고

경호의 목소리는 수화기 속에서 웅얼거린다. (안들림)

강일이 인상을 팍 찡그렸다

또 경호가 뭐라하니 강일이 그럴싸한 듯 고개를 끄덕끄덕.

강일 너는 변호사를 했어야 했다, 임마.

S#32. 진경의 집, 새벽.

해가 뜨기 전, 약간은 어두운 새벽.

담장 위로 누군가의 눈이 보인다.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더니 우당탕탕 담을 넘는 사람.

강일이다.

생각보다 크게 난 소리에 좀 당황한 눈치.
살금살금 현관 앞으로 가더니 꽃다발 하나를 둔다.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한참동안 쪽지를 쓴다.
결국 완성한 듯 쪽지를 꽃다발 안에 넣고 다시 어설피게 담장을 넘어 나간다.
강일이 사라지고 난 마당은 조용하다.
어디서 꺾어온듯 제각각의 길이의 장미 열댓송이.
그 사이의 흰색 쪽지.

S#33. 진경의 집, 아침.
꽃다발 그대로.
어둡던 날(S#32)이 밝아진다.
문이 열리자 밀려나는 꽃다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진경이다.

진경 뭐야..?

꽃다발을 주워드는 진경.

진경 웬 꽃이지?

기분 좋은듯 냄새 맡아보는 진경.
사이의 쪽지를 발견한다.

진경 좋은.. 하루 보내요?

S#34. 동네 마트 앞, 오후. (소리X)
동네 마트 앞에 강일이 얼얼얼얼 거리고 있다.
안을 훑쳐보던 강일이 갑자기 후다닥 골목으로 숨는다.
그러자 나오는 진경.
양 손에 짐을 들고 있다.
강일이 모르는 척 지나가다가 아는 척을 한다.
진경이 떨떠름하게 인사하는데 짐을 들어주는 강일.

S#35. 농협 앞, 비오는 오후. (소리X)

진경이 농협에서 통장을 확인하며 나온다.
통장에 정신 팔린 듯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방울씩 떨어진다.
깜짝 놀라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비.
진경이 당황해하는데, 농협 앞으로 작은 트럭 하나가 선다.
창문 내리면 강일이 씩스러운 표정으로 타라는 듯 엄지로 차를 가리킨다.
진경과 눈도 못 마주치는 게 포인트.

S#36. 마을 공터, 저녁.

오랜만에 왁자지껄한 마을.
저녁이지만 공터만은 환하다.
공터 중앙의 넓은 석판에 고기를 굽고 있다.
그 주위로 술상이 펼쳐져있고, 아이들은 공터 한편에서 뛰어놀고 있다.
진경이 약간 큰 바위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강일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진경이 계속 쳐다보다가 고개를 흔들고는 괜히 딴 곳을 본다.

강일 마실래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면,
강일이 캔맥주 두 개를 들고 서있다.

S#37. 마을 공터, 저녁.

바위에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강일과 진경.
진경이 맥주를 마시면서 강일을 힐끗힐끗 본다.
강일이 쳐다보자 안 쳐다본 척 시선을 돌리는 진경.

강일 왜요? 뭐 묻었어요.

진경 ..안 봤어요.

강일 이상해요?
진경 ..조금요.
강일 그때 미안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진경 저도요. 근데 그거 제 머리카락 진짜 아니었어요..

진경이 억울한 표정으로 강일 쪽으로 돌아본다.
다시 그때의 상황 같다.
강일과 진경이 웃음이 터진다.

강일 삼촌이 진경씨 많이 좋아해요. 알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사과아가씨 그거 해요.
 내년에는 꼭 내보내겠다고 버르고 계시던데.
진경 그거 무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떨리는 지 알아요?
 저 세마디도 못하고 울면서 내려왔잖아요.
강일 알아요. 삼촌이 다 말해주셨어요.
 까르보나라 제일 잘 만드는 것도 알고,
 꽃은 장미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과일은 딸기, 아니면 복숭아.
 또 뭐 있지?
진경 뭐 이렇게 많이 알아요?
강일 뭐.. (어깨 으쓱) 그럼 진경씨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진경 아뇨. 서울은 무리더라도 제 가게 하나는 내야죠.
 강일씨는 언제 다시 서울 가요?
강일 음..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진경씨, 저랑..
진경 ..!! 아, 아니에요. 저 급한 일 생겨서요. 먼저 가볼게요!

진경이 강일의 말을 끊고 후다닥 도망간다.
진경이 내던지다 싶이 놓고 간 맥주를 드는 강일.

강일 박강일, 미쳤네..

S#38. 진경의 집, 거실.
쇼파에서 진태가 신문을 보고 있다.
그때 들어오는 강일.

진태 어, 그래. 그래.
강일 무슨 일이세요?
진태 아니, 그때 내한테 해준 사진 그거 있다이가.
 그거 혹시 이 사진도 되나 싶어가 불렀다.

진태가 강일에게 사진을 준다.
강일의 표정이 묘하다.

진태 그기 아버지랑 그 분 사진이라 카는데
 내 사진 얘기 하니까 아버지도 부탁할 수 있냐 카드라고.
 너무 오래되서 안되긋나?
강일 이거.. 혹시 이 여자분 성함 아세요?
진태 글썸. 내가 그거까진 모르겠다.
 왜? 아는 사람이?
강일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S#39. 성길(진태父) 병실, 낮
요양병원답게 조용한 빈 병실.
홀로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뒤를 돌면 열심히 스마트폰 게임 중이다.

성길 아고, 아고. 또 부딪혀뿌렸네.. 에이.

병실 문이 열리고 진태와 강일이 들어온다.
그 뒤를 들어오는 곱게 늙은 할머니.
바로 강일의 할머니, 순이다.

성길 ..??
순이 성길씨..
성길 ...!!

S#40. 요양병원 내 정원, 낮.
정원 안에 만들어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길, 순이, 진태, 강일.

성길과 순이는 다정한 부부같은 모습이다.

강일 그러니까.. 무당이나 못자리는 다 거짓말이고
 할머니도 첫사랑이랑 약속한 땅이 이유셨던거예요?
순이 ..호호.. 창피하잖니. 이 나이 먹도록 첫사랑 타령 하는게.
강일 근데 왜 여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순이 최가댁 아들이 죽었다고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느그 할아버지도 만났고..
진태 그건 제 아버지시겠네요.
성길 그래, 형님 이야기가 잘못 전해진건갑다.
 진태가 형님의 아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거뒀거든.
진태 그럼 아버지는 왜 안 찾으셨어요?
성길 나는 가진게 과수원 뿐인데 무슨 염치로 순이를 찾아.
순이 성길씨..
성길 순이..

성길과 순이가 손을 마주 잡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을 교환한다.
진태와 강일의 시선이 마주치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순이 늦게나마 만났으니 그 곳에 약속대로 집은 못 짓더라도
 같이 누울 수는 있겠네요.
 강일아, 고맙다. 할미의 소원을 이뤄줘서..
성길 고맙네, 청년.

S#41. 강일의 오피스텔
화이트와 블랙 톤으로 어우러진 깔끔한 방 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강일.
불편한 듯 이리 눕고 저리 눕는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난다.

강일 으아!!!!!!

S#42. 강일의 차 안, 밤.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차.
강일이 계속해서 엑셀을 밟는다.
한눈 팔지 않고 앞만 주시하는 강일.
표정이 꽤나 진지하다.
강일의 외제차가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한다.

S#43.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진경이 앉아 있다.
느티나무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잎사귀를 하나씩 떼본다.

진경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진경 ..아니다.

진경의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
그때, 클락션 소리가 크게 들린다.
진경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면 검정색 외제차.
외제차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강일이다.
강일의 표정이 밝다.
강일이 씨익 웃으면서 팔을 벌린다.
얼떨떨한 진경이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해된 듯 웃으면서 강일에게 뛰어간다.

-감사합니다-